영화·광고 속에도 '불교코드'가 숨어있네?

인간의 삶과 욕망이 그대로 반영되는 대중문화의 대표 매체로써 기술문명의 중심부에 영상미디어가 있다. 불교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괴로움(苦)과 괴로움의 원인(集), 괴로움의 소멸(滅)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 길(道)을 대변하는 이 시대의 거울이 바로 영상미디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언명제는 무수한 인연의 결합이라는 원인에서 비롯된 것. 인연의 의미는 다양한 인간만큼이나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속성은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간의 복잡한 경험담은 영상미디어의 주요 소재거리가 된다. 차가운 스크린 혹은 브라운관에 비춰지는 군상들 속에서 인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공간을 아우른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수미산의 겨자씨 비유처럼 인간은 진실한 실제를 살아가기 어렵다. 인간이 집착하는 실제에서 벗어나 궁극의 자유로운 실제로 향하는 여정을 영상미디어 속 주인공들은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 최근 영상미디어에 나타난 불교 메세지에 주목한다. 각각의 주인공이 나름대로 펼쳐 보이는 인생사는 결국 인간의 문제이며 밝은 미래를 향한 자유의지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영상미디어 속에 나타난 불교사상

극장애니메이션: 〈쿵푸팬더〉

게으름의 상징인 팬더가 쿵푸를 한다? 극장애니메이션으로 온가족이 함께 관람 가능한 <쿵푸팬더(드림웍스)>는 코믹 액션 블록버스터이다. 평화의 계곡, 대대손손 이어져온 국수집에서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 국수배달을 하던 팬더 '포'가 마을의 현자 '우그웨이'로부터 용문서의 전수자로 점지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쿵푸라고는 전혀 모르는 평균 수면시간 22시간, 이동속도 시속 30cm, 키 120cm에 몸무게 160kg인 초고도 비만팬더 포는 자신이 영웅이라는 소리에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이런 포가 못미덥지만 '예언의 인물'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쿵푸 마스터 시푸 사부와 수제자들은 기상천외한 특별훈련으로 포의 훈련에 함께한다. 타고난 몸치에다 식신인 함량미달 팬더의 쿵푸 영웅 도전기는 '내 안에 잠재된 참 나'를 깨우는 과정이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조금씩 쿵푸 마스터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에서 모든 해법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TV광고: 〈CYON와인폰〉 〈니콘D300〉

"스님. 삶의 지혜란 어떤 건가요?"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큰 걸 볼 줄 아는 것이지." "그럼 큰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답한다. "돈 주고 사라 이놈아." 유유히 흐르는 물길 위에서 인생이란 조각배를 타고 가며 스님에게 삶의 지혜를 묻는 핸드폰 광고다. 와인(WINE)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내외부 LCD화면을 키우고 기능버튼을 한글로 표시한 제품의 특징을 '크다'는 컨셉으로 압축하였다. 구매 대상 소비자의 고민을 불교의 선문답과 연관 지은 TV CF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나를 의식하지 않게 하겠다.' 니콘(Nikon) 카메라가 지닌 사실적인 색감 표현과 다큐멘터리 작가에게 느껴지는 진중하고 순수한 열정을 효과적으로 살린 TV CF이다.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인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내의 바이욘 사원을 배경으로 자연의 웅장함을 표현하고 스타모델 비(정지훈)를 기용하였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보는 지혜를 의미한다. 불교의 사마타(止)·위빠사나(觀)와 같다. 도성제로서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八正道)는 무상(無常)한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공(空)한 진리로 향하는 수행법이다. 불교문화유적지에서 수행자를 바라보며 읊조리는 사진작가의 독백이 진실로 어필한다. 헤아리기 어려운 태고적 불교문화의 신비를 제품의 독자성과 연관 지었다.

드라마: 〈일지매〉의 공갈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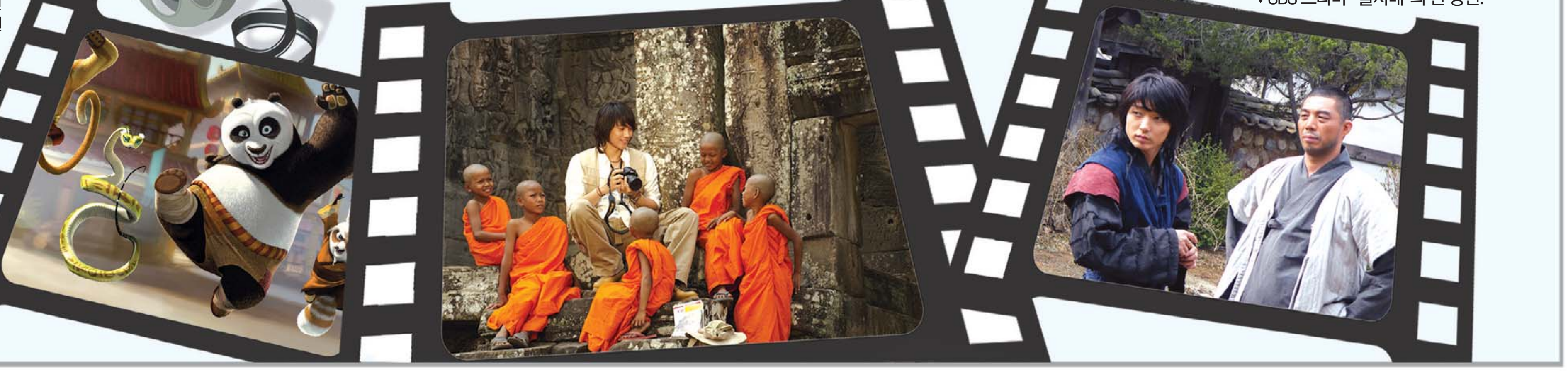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소?" 공갈아제(안길강)는 수·목요일이 되면 한양 남문 저잣거리로 탁발을 나선다. 억눌린 서민의 가슴을 후련히 해주는 드라마 <일지매(SBS)>속 아제의 직업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극중 봉순의 양아버지이기도 한 아제는 귀여운 부녀공갈사기단이다.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는 아제는 삶에 욕심이 없다. 과거 잘나가던 왕의 호위무사로 인조반정에 가담하면서 살생에 대한 죄의식을 느낀 후 승복을 입고 서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한다는 짓(?)이 사기행각 연발이다. 만날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다시 만난다 했던가. 자신이 암살했던 인물의 아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 일지매(이준기)와의 가슴 아픈 인연으로 무술을 전수한다. 공갈아제는 조선시대 억불정책 속에서 행색은 초라하지만 강인한 내면으로 부조리한 계급사회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승려이다. 배우 안길강은 "드라마의 배경이 조선시대 중기이지만 모티브만 따랐을 뿐 현시대와 견주어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윤택함이 나아졌을 뿐 공갈아제는 허구와 정의가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말했다. 인간이기에 살아가는 동안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업(業)의 굴레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는 퓨전 사극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팬더'의 한 장면.

▼가수 '비'가 출연한 '니콘 카메라' CF의 한 장면.

▼SBS 드라마 '일지매'의 한 장면.



"라다크의 생명윤리 불교와 通해요"

제5회 서울환경영화제서 만난 〈오래된 미래〉 헬레나호지 감독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보여주는 위기는 생명의 존엄함입니다. 다행이도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적입니다. 인류가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지난 5월 28일,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1993)>가 제5회 서울 환경영화제 '문명의 저편' 섹션에서 상영됐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라다크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인류의 대안을 찾는 내용이다. 이어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감독(사진)과 함께 작품의 제작 배경과 세계화·경제화에 맞선 지속가능한 삶에 관한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감독 헬레나 호지는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이자 생태운동가이다.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자리한 인도 북부의 라다크에 방문한 이후 16년 동안 거주했다.

"라다크를 통해 진정한 부의 의미는 재해석됩니다. 라다크의 경제 시스템은 우리의 소중한 후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밀접한 상호 관계입니다." 수세대에 걸친 라다크의 자연 활용법은 낭비하지 않는 삶에 있다. 천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라다크의 자연 친화적인 경제학은 불교와 통한다. 1만 6천 피트의 험한 산세 속에서도 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정신적 기반이 불교다.

지난 20년 동안 라다크는 현대문명에 개방됐고 인도로부터 문명의 이기가 들어온 이후 전통문화는 파괴되었다. 현대화는 모든 가치관을 흔들었다. 충돌과 폭력으로 파괴된 오늘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의 라다크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그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인간 정신의 각성은 타인들 그리고 자연과 연결됨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안의 세계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의 고리임을 깨우쳐야 한다.

가연숙 기자

문화 소식

대만 화가 호쥔밍씨 작품展

이태원에 위치한 표 갤러리 본관에서 6월 13일까지 대만의 유명화가 호쥔밍(Hou Chunming)의 대형 작품전이 열린다. 신적인 존재와 영접하면서 내면을 탐구하는 작가 호쥔밍은 수도자와 같이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만다라적인 시각이미지로 표현해왔다.

그의 작업 세계에 나타나는 많은 신들은 대만의 토속신앙에 뿌리를 둔다. 그의 작품은 자아성찰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동양의 사유를 대변한다.

가연숙 기자

법만 스님 염불CD 8집 발표

법문가요와 향토가요로 알려진 법만 스님(법만사 주지)이 마음의 안온함과 고요함을 일깨우는 염불CD음반 8집을 묶어 출시했다. 불자들이 기도를 하려해도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일상의 염불로 일념(一念)에 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온 스님의 성과이다. 총 제작기간 1년 반, 염불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전만을 독송했다.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배우면 덕스러워집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목탁 집전과 독경의 고저로만 전달되는 생생한 염불이다. 가연숙 기자

2008 환경의날 기념 사진展

환경재단은 6월 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문화홀에서 마음의 정원 사진전을 연다. 자연이 주는 사색과 영감, 생명의 기운, 자연과 인공 환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경험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는 지배와 순응의 순환 고리를 고민해온 사진작가들의 작품은 전시를 통해 자선 경매된다. 그 수익금은 아시아지역 물 부족 국가의 '생명의 우물'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사색의 걸음을 옮기다' '생명의 기운을 느끼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로 총 40명의 작품 80여점으로 구성되었다.

가연숙 기자

입 종 안 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포교원장 무원 도일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관상학最高의 秘書
면 상 비 급

절찬리 판매중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관상학의 비법수록!!
관상학의 완결편!!

4×6변형판 / 432쪽 / 값 25,000원

■ 관상학을 배우면?
첫째 자신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둘째 자신과 고객이 차별화되어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고객중심의 상담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 매주 일요일(오전 10:30~13:00)
문의전화 02)929-4646

기업은행 041-055985-02-010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청학 출판사

이 의식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초심자나, 정확한 의식이 필요한 전문가 모두, 다른 페이지를 찾지 않고 모든 의식을 집전하실 수 있습니다.

新刊 通用佛教·齋禮儀範 案內

◐ 불교의범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송주편	제 2장 예경편	제 3장 전각예경편
제 4장 불공편	제 5장 모든법회	제 6장 방생
제 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제 8장 점안편	제 9장 이운편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10장 수계편	제11장 고사편

◐ 재례의범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시식편	제2장 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제4장 장 四十九齋	제5장 재공편	제6장 기제사
제7장 靈魂結婚篇		

불서총판 책나라 02)739-7451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화제의 책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화재의 신간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중생의 고통을 보듬는 관음정사에 오시면
선택 기도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